



20일 오전 광주공원 '어린이현장탑'에 인근 공사장에서 뿜힌 가로등이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공공조형물 도심 흉물 전략 관리영망 속 구청은 '뒷짐'

형식적 점검 탁상행정 비난  
무분별 방치 문화적 공유 못해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 시급

각 지자체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공공조형물이 도심 흉물로 전략하고 있다.

일부 공공조형물 경우 쓰레기더미와 잡초에 파묻혀 있고, 또 다른 작품은 입간판과 뒤섞여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인데도 각 지자체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높다.

20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문화적 공유를 위해 상징적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4월 기준 203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27개, 동구 40개, 서구 50개, 남구 13개, 북구 50개, 광산구는 23개를 각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공공조형물 관리의 허

술하기 짝이 없다.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탓에 형식적인 점검 시스템만 있을 뿐, 사실상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조형물 점검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특이사항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 뿐이다. 여기에 일부 공공조형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설치한 공공조형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59년에 광주공원에 설치한 '어린이 현장탑' 조형물의 경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870여만원을 투입해 현장탑 주변 환경을 정비 했으나 현재 지자체의 관리·점검은 전무하다.

실제 어린이 현장탑은 인근에는 공사 현장에서 뿜힌 전봇대가 널브러져 있었고, 주변엔 풀과 잡초만 무성했다.

다른 지역도 별반 차이 없다. 상가 광고판 여러 개가 조형물을 가로막아 조형물이 있는 지조차 알기 힘들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구는 시비(주민숙원사업비) 9억원을 들여 대촌동에 대형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 정모씨(35)는 "주변을 자주 다니는데 공공조형물이 있는 줄도 몰랐다. 밤이 되면 조형물 주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공 조형물은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외면 받는 작품들이 많다"며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실질적인 문화적 향유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관리 안내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공공조형물 전체를 점검하기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 방문 없이 수도 요금 산정 검침원들

담양군, 5명 고발 조치 예정

담양군 소속 수도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산정해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했다.

이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양군 일부 가정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수실에서 수백만원 한 번에 납부하는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수도 요금 800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담양군은 1,954가구에 사과문을 보냈으며 이들 5명을 징계 처분과 별도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 '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추가 혐의 적발

담양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를 대접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굄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여기에 유관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포착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별도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식사 제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접대 받은 지역 주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주민들이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임해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 군수도 경찰 소환조사에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해준 이들이 10명 미만이지만,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면 주민들에게 제공한 굄품이나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기부 행위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다만 이 군수가 추가 혐의로 최근 추가 인지(입건)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 자기 땅에 도로 확장공사, 전남도의원 입건

여수경찰서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벌여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최무경 전남도의원을 입건, 조사 중이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여주만 명품관광지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된 뒤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1만9,000여㎡(10억2,000만원 상당)를 사들였다.

이후 최 의원은 매입한 토지 주변의 도로 개선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4월 도비 18억원이 투입돼 최 의원 토지 주변에 2차로 385m 신설하고 140m 상당의 1차로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돼 시비가 일었다. 공사 두 달 뒤에 최 의원의 부인이 땅 1,100㎡를 추가 매입

하기도 했다.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최 의원의 토지와 연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되고, 기존보다 거리도 짧아지게 된다. 매입 당시보다 땅값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제안했을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名家

기능성 속옷의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흔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아모라이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라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래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